

5

왜의 다섯왕 (五王)

중국정사(正史)에 나타나는

5세기 야마토 왜의 왕들

몇몇 일본 학자들은, 송서 이만전(夷蠻傳)에 나타나는 왜의 다섯 왕에 관한 기록을 연구해서, 흔히 『불가사의한 4세기』라고 불리는 그 역사적 공백기간을 메꾸어 보려 했다.¹ 송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찬(讚)이 죽고 그의 동생 진(珍)이 왕에 오르자, 그는[서기 438년]송조(宋朝)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스스로 사지절 도독, 왜,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마한, 육국 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 칭하면서 (自稱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辰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君, 倭國王), 표를 올려 그 칭호를 정식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송조는) 조서를 내려 안동장군 왜국왕 칭호를 제수해 주었다”.

¹키타무라 분지(KEJ: 2, 287)는 “고대 일본 사서들이, 이 5세기 통치자들의 역사적 확실성을 증명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록들이 오히려 귀중한 확정적인 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이(濟)라는 왕은 서기 443년에 안동장군 왜국왕의 칭호를 정식으로 인정 받았다. 서기 451년에는 “이에 더해서 사지절 도독, 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마한, 육국제군사, 안동장군이란 칭호가 제수되었다.”¹⁾ 이 칭호에서는, 송 조정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백제가 가라(加羅)로 대체 되었다. 유송(劉宋) 조정 에게는, 그 칭호속에 들어 있는 여섯나라 들이란, 백제만 제외 한다면, 모두 외교적 측면에서 볼때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 이었다. 사이(濟)왕의 아들 고오(興) 역시 안동장군 왜국왕의 칭호가 제수되었다.

신라나 가야(伽耶)연맹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송(劉宋) 조정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었다. 또 마한(馬韓, 慕韓)과 진한을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성읍 국가들은 이미 (가야 연맹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게된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제와 신라에 정복되어) 독립된 정치적 실체가 아니었었다. 따라서 유송의 통치자들은 왜의 지배자들이 제시한, 외교상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에 있는 국가들 명단으로 부터, 백제만을 분명하게 제외 시켜 놓은 다음에는, 『도독, 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마한』이란 칭호 자체에 별 관심을 안두었던 것이 분명하다.²⁾

송서는 “고오(興)가 죽고, 그의 동생 부(武)가 즉위했다. 자칭 사지절 도독,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마한, 7국제군

¹⁾에가미(1964)가 말하는 것처럼, 왜왕들이 자칭한 칭호속에 들어 있는 여섯 혹은 일곱개의 국가 명칭속에, 신라와 백제의 전신인 진한과 마한이 들어 있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 보일것이다. 에가미는 왜왕들이 단순히 그들 통치 영역에 대해 허세를 부려보려고, 남한지역에 있는 여섯개 혹은 일곱개 나라 이름들을 포함 시킨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이름들을 포함 시켰을 리가 없는것 같다. 그렇다면 아마도 왜왕들이 5세기에 중국으로 사절을 보냈을 당시, 진한 혹은 마한의 잔존 국가들이, 가야연맹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80)에 의하면, 신라는 서기 521년에 백제 사절이 가는편에 량(梁) 조정에 사신을 보내므로서, 처음으로 중국 남조의 왕국들과 접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 안동대장군, 왜국왕 (이라 부르며 사신을 보내왔다).”⁴¹ 왜왕 부는 서기 478년 안동대장군 칭호를 제수 받았다. 남제서는 왜왕 부(武)가 서기 479년에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으로 승진 되었다고 기록했고, 양서는 그가 서기 502년에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으로 승진 되었다고 기록했다.⁴² 사카모토(히라노, 1977, 인용)는 왜왕 고오(興)가 서기 462년에 안동장군(安東將軍) 칭호를 받았을때, 송서에 의하면 고구려왕(장수왕, 재위 413-491년)은 정동장군(征東將軍) 칭호를, 또 백제왕(전지왕, 재위 405-420년)은 진동장군(鎭東將軍)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야마토 통치자들이 고구려와 백제왕들 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43, 7, 8, & 3, 7, 9} 히라노(1977)는 “이것이 바로 중국 입장에서 본 석차(席次)였는데, 당시 존재하던 국제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해 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카모토를 인용하고 있다.

히라노(1977)에 의하면, 백제 장군들과 제후들에게 제수된 칭호들은, 장군이란 명칭 뒤에 명목상의 영지 이름이 첨가 되어 있는데 (사카모토를 인용한다면) “이들 칭호는 왕자들이나 귀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 . . 백제왕은 대왕(大王)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남제서에 의하면 백제왕이 5세기말에, 그의 신하들을 위해 직위와 칭호 목록을 만들어 보냈었는데, 남제 조정은 그 명단에 쓰여져 있는 대로, 직위와 칭호들을 제수해 주었다. 그 목록에는 5개의 왕들 칭호, 3개의 제후 칭호, 조선태수, 낙랑태수, 대방태수를 포함한 7개의 태수(太守) 칭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43, 7, 12} 사실인즉 일본서기(NI: 42)도, 서기 541년에 백제왕이 한 말을 전할때, 대왕(大王)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⁴² 반면에, 중국사서에서 왜의 다섯왕을 언급 할때에는, 그들이 대왕의 위치에 있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³

³사에키(1977)는, 왜의 다섯왕들이 송의 황제에게 대장군 칭호를 제수 해달라고 끈질기게 청했지만, “그들이 받아 낼수 있었던 것은 장군 칭호 뿐이었는데, 이 칭호는 왜의 지방 호족들 한테도 제수 되었던 것들이다”라고 말한다.

히라노(1977)는 “왜가 백제로 부터 조공을 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 . . 오히려 백제가 고구려에 대항 하면서, 왜로부터 후방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전히 필요에 의해 왜의 사절을 정중하게 대접하지 않을수 없는, 참피스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히라노는 또 “백제왕들이 고구려 침략자들에 관한 서간 내용에서, 『탐욕스런 늑대』 그리고 『악당들이 점점더 날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왜왕 부(武)가 고구려 침략자를 『무도한 강적(強敵)』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양국 왕들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동일 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나리아마(稻荷山)에서 발굴된 칼에 새겨진 명문은, 대왕이란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데(獲加多支齒大王), 무라야마와 밀러(1979)에 의하면, 이것은 1873년에 발견된 후나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칼(熊本縣船山古墳出土太刀)의 명문에서 나오는 대왕과 똑같은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그들은 또 한국학자 이진희(李進熙)가 이미 오래전부터, 후나야마 명문의 대왕이란, 일본의 천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로왕(蓋鹵王, 재위 455-475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사실을 소개했다.⁵

이나리아마 칼과 후나야마 칼(칠지도를 포함해서)에 새겨진 명문을 검토한 다음, 무라야마와 밀러(1979)가 『눈에 띄게 옛 백제식 말』이라고 부르게된 그 특징들, 혹은 김석형(金錫亨, 1969: 243-245)이 『한국의 이두식 말(史讀式語)』이라고 부르게 된 특징들을 근거로해서, 우리는 김석형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 칼들이 백제에서

⁴후나야마 칼에 새겨진 명문 내용은: “(尙)天下獲 × × × 齒大王世奉爲(事)典舊人名(無)利工八月中用大鑄釜并四尺 × 刀八十練六十 × 三寸 × 刀服此刀者長壽子孫洋洋得三恩也不失其所統作名伊太 × 書子長安也.” 김석형(金錫亨, 1969: 241-242) 참조.

⁵이나리아마 칼의 명문은 “辛亥年 . . . 獲加多支齒大王寺在斯鬼宮時吾(乎獲居)佑治天下令作此百練利刀 . . .”라고 판독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읽을수 있다. 즉 “신해년(서기 471) . . . 와카다(獲加多) 개로 대왕이 사귀궁에 있었을때 . . .” (2장 6절, 각주 10번 참조.) 이진희(1982)를 또 참조 해볼것.

제조된 것이며, 그 명문들에서 언급된 대왕(支鹵大王)이란 바로 백제 개로왕(蓋鹵大王)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⁶ 아무튼 무라야마와 밀러(1979: 432)에 의하면, 지(支)라는 글자는 “기” 또는 “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支鹵大王).

무라야마와 밀러(1979)가, 이나리아마 명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에 띄게 옛 백제식 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알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검토해 보면 될 것이다. 그 명문은, “신해년 7월중 기록한다(辛亥年七月中記). 상조(上祖)의 이름이 오호히코(意富比岐)인 오와케신(乎獲居臣)이 . . .”라는 말로 시작된다. 첫째로 “히코”를 “비케”로 쓰는 것을 보자. 일본서기 진구우 62년 [서기 382년] 본문 기록은 소쓰히코를 습진언(襲津彦)이라고 썼는데, 백제기(百濟記)를 인용하는 구절에서는, 소쓰히코가 사지비케(沙至比岐)로 쓰여져 있었다. 둘째로 “오”를 “의(意)”로 쓰는 것을 보자. 일본서기의 게이타이 7년 기록(NII: 9)은, 오시아마 노오미를 신압산(臣押山)이라고 썼는데, 백제본기(百濟本記)를 인용하는 구절에서는 이사이마 기미(意斯移麻岐彌)로 쓰여져 있었다. 분명히 의(意)라는 글자는 “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셋째로 “중(中)”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자. 중(中)이란 글자를 “신해년 7월”과 기(記)라는 글자 사이에 삽입한 것은, 한국의 4세기 중엽 이후 비문 등에서 전형적으로 쓰여지는 방식이었다. 일본서기(NI: 246)의 진구우 46년 [서기 364년] 기록은, 그 출처가 백제인 것에 틀림없는 구절에서, 같은 방식으로 중(中)이라는 글자를 사용한다: “갑자년 7월중 백제인 3인이 . . . (甲子年七月中百濟人 . . . 三人 . . .).” 네번째로, “케”를 “거(居)”로 쓰는 것을 보자. 와케(獲居)를 쓸 때, 그 두번째 글자인 거(居)는, 킨메이 6년

⁶초기의 이두(吏讀)식 표현 방법에서는, 한자들이 한국어 순서대로 배열되었다. 하지만 후기에 와서는 좀더 세련된 방법이 개발되어, 한국어의 명사는 중국문자 중에 같은 뜻을 가진 것을 사용해서 표현했고, 동사의 어간, 어형변화, 기타 문법적인 요소들은, 원하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을 임의로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었다. 이기백(1984: 57) 참조.

(서기 545년) 백제가 여섯장이나 되는 크기의 불상을 만들어 보내 줄때 (百濟造丈六佛像) 함께 전해준, 원문(願文) 내용에 수록된 미야케(彌移居)라는 단어의 끝 글자로 나타난다. 일본서기 II: 60 참조).